

한국정원과 우리음악의 행복한 만남



배우 강신일



국악방송이 제작한 '음악의 정원'은 한국정원과 역사적 인물, 우리 음악이 어우러진 다큐멘터리다. 28일 KBS 1TV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가는 완도 보길도 세연정 편의 한 장면. <국악방송 제공>

국악방송 10부작 다큐 '음악의 정원' 19~30일 KBS1 방영



27일 담양 소쇄원, 28일 완도 세연정 내레이션 강신일, 배우 이원발 출연 드론·플라잉 캠 활용 웅장함 담아 국악연주자 생생한 현장 라이브 연주

'한국 정원과 우리 음악의 행복한 조우' 완도군 보길도는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와 인연이 깊은 장소다. 완도로 유배를 온 고산은 이곳에 직접 건축물을 짓고 시를 쓰며 여생을 보냈다.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성취 중 하나로 꼽히는 '어부사시사'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그가 조성한 아름다운 정원 세연정은 안반죽도의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하였던 의지가 담긴 공간이다. 세연정 이외에도 보길도에는 고산이 낚시를 즐기던 칠암바위를 비롯

해 세연정과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소암 등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재)국악방송이 개국 17주년을 맞아 UHD 미니다큐 '음악의 정원'을 선보인다. 보길도 세연정 등 역사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국내 대표 정원 10곳을 선정, 그곳의 역사적 인물과 정원에 대한 숨겨진 스토리를 우리 음악과 함께 보고듣는 '이미지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19일 방영된 강릉 경포호수 선교장 활래

정을 시작으로 오는 30일(월~금·밤11시 30분)까지 KBS1 TV를 통해 방영되는 '음악의 정원'은 담양 소쇄원, 보길도 세연정, 남원 광한루 등 국내 여행지로도 유명한 다양한 전통정원들을 주변 풍경과 함께 소개한다. 내레이션은 연기파 배우 강신일이 맡아 시청자들을 전통 정원의 세계로 안내하며 배우 이원발이 직접 정원을 탐사하고 역사적 인물을 재연한다. 또 현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국악 국악 예술인들이 생생한 연주를 들려준다. 특히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국 정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드론, 플라잉 캠 등을 활용해 웅장함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담양 소쇄원은 오는 27일 시청자를 찾아간다. 소쇄원 양산보가 기묘사화로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사망하자 충격을 받고 고향으로 낙향해 지은 소쇄원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 건물들이 지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 정원으로 제철당과 광곡각 등

이 유명하다. 방송에서는 소쇄원의 아름다운 풍광과 양산보의 이야기기 결정되며 이상원의 대금 연주 '청송곡', 조일화가 노래하는 가사 '수양산가' 등을 만날 수 있다. 28일에는 완도 보길도 세연정을 만날 수 있다. 고산 윤선도의 삶과 함께 배우 이원발이 옥소암에 올라 보길도 곳곳을 내려다 보는 모습을 전하며 전현준의 거문고 연주 '하현도드리'와 김명주의 노래로 듣는 가사 '어부사시사'가 방송된다. 남원 광한루(29일) 편에서는 춘향과 이몽룡을 만난다. 연주는 판소리 '춘향가' 중 '적성가'와 '사랑가'를 임재현의 소리와 송은영의 가야금병창으로 듣는다. 그밖에 20일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북 울진 망양정이 소개되며 경북 안동의 만휴정(21일), 충남 논산 명재 고택(22일), 송시열을 기리는 충북 괴산 암서재(23일), 박지원과 인연이 깊은 경남 함양 거연정(26일), 진주 축석루(30일)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올리스트 용재 오늘 9집 앨범 '듀오' 발매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의 멤버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최근 9집 앨범 '듀오'(사진)를 발매했다. 9집 앨범 주제는 현과 현의 대화를 담은 '듀오'다. 2012년 '솔로(SOLO)' 앨범에서 비올라 한 대로 깊은 음악성과 뛰어난 해석을 보여줬던 용재오닐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이수민이 참여했다. 이 앨범은 세 팀의 듀오로 편성돼 있는데 바이올린-비올라, 비올라-비올라, 비올라-첼로로 구성돼 있다. 연주곡목은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2중주', 베토벤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중주곡', 프랑크 브리지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에가' 등 18세기~20세기 다양한 작곡가와 그들의 2중주 곡들이 담겼다. 용재오닐은 비올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았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를, 줄리아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비올리스트로서는 이례적으로 유니버설 클래식 소속으로 8장의 솔로 음반과 1장의 베스트 음반을 발매해 총 15만 장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이명은 개인전 '변서곡-소소한 여정'

22일까지
금호갤러리



▶낮은 풍경
▶낮은 일상

이명은 작가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유·스퀘어 청년 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돼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변서곡(變序曲)-소소한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전통수묵화를 바탕으로 채색화를 접목시킨 작품들을 선보인다. 화폭에 주로 등장하는 풍경 속의 집은 작가가 살았던 오래된 동네 풍경의 추억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인 작품 속에는 천방지축 뛰

노는 강아지, 빨래하는 소박한 모습 등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다. 채색화로 알록달록 표현된 소재들은 숨은 그림 찾기 처럼 화폭 곳곳에 응크리고 있다. 작가는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살펴보면 아름다운 것을 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리워지는 것들을 작품에 그려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24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문·사진)이 제125회 정기연주회 'Song of Hope'를 선보인다. 24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40여 명의 단원들이 맑고 순수한 하모니로 봄의 정취를 전한다. 첫 번째 무대는 '동요의 세상'으로 연다. '어느 봄날', '엄마야 누나야+섬 집 아기', '물방울 하나', '푸른 꿈을 키워가요' 등의 동요들을 들려준다. 두 번째 무대는 무반주 합창음악무대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전한다. 요한 파렐의 '개는', 안크제의 성가곡 '자비송(Kyrie)'을 비롯해 린드마크의 '희망의 노래'를 타악기 카운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 뮤지컬 음악 모음곡으로 무대를 채운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시스터 액트', '그리스' 등 뮤지컬 속 음악과 춤, 뮤지컬 하이라이트 영상이 어우러진 무대를 준비했다. 박영렬 재즈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과 광주아버지합창단이 특별출연한다. 전석 1만 원(학생 50%). 문의 062-613-824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광주시립미술관 '풍경 사이'전 내일 '작가와 대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풍경 사이'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대화'를 21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이번 대화에는 이정록·지성배 작가가 참여한다. 이정록 작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를 빛으로 가시화시킴으로써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풍경작업을 한다. 지성배 작가는 고향이기도 한 순

천에서 터를 잡은 뒤, '1839 사진창작 순천레지던시' 및 '순천창작예술촌'을 기획 운영하는 등 기획자로서도 경험이 풍부한 사진작가다. 한편 미술관은 오는 4월 25일에는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참여작가인 김영태·김혜원·박일구씨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문의 062-613-71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